

‘AI·로봇 동료’ 시대 본격화… 현대차, HR 미래 다시 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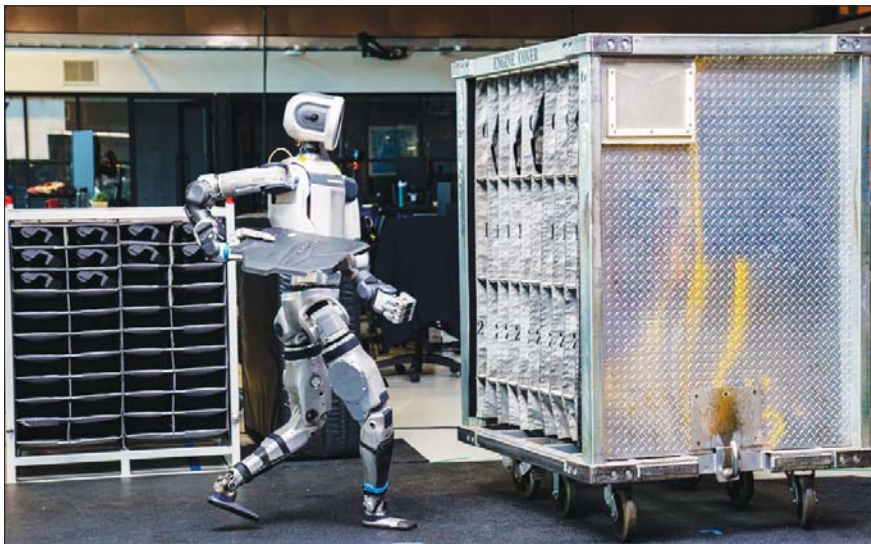
〈휴먼 리소스〉

미국 보스턴다이나믹스서 회의
UPS·큐리그 글로벌 CHRO 참석
로봇시연 경험하며 업무적용 논의
AI 활용 조직문화 변화 사례 공유
“HR, 기술 이해하는 리더십 필요”

현대자동차가 글로벌 기업과 로봇-인공지능(AI) 시대의 인사관리(HR) 역할을 논의하는 자리를 마련했다.

현대차와 보스턴다이나믹스는 최근 보스턴다이나믹스 본사에 UPS·갭·큐리그 닥터페퍼 등 글로벌 기업 최고인사책임자 8명을 초청했다고 13일 밝혔다. 참석자들은 이번 만남에서 보스턴다이나믹스가 제작한 이족보행 로봇 아틀라스(Atlas)·사족보행 로봇 스팟(Spot)·물류 로봇 스트레치(Stretch) 시연을 직접 경험하며, 로봇의 실제 도입사례와 그 효과, 향후 개선사항, 로봇의 업무 범위 확장의 가능성에 대한 의견을 서로 교환했다.

특히 로봇이 단순 기계 장치를 넘어 인간과 연결되는 존재로서의 발전 가능성을 진단하며 인간과 로봇이 공



보스턴다이나믹스가 제작한 이족보행 로봇 아틀라스.

존할 수 있는 HR 방향성에 대해 논의했다.

이들은 또 이미 기업 운영 전반에 적용되기 시작한 AI를 어떻게 더 효율적으로 사용할 지에 대한 토론도 벌였다. 먼저 글로벌 물류기업인 UPS에서 운영하는 AI 콜센터 도우미 등 각 기업의 업무에 활용되고 있는 AI 사례를 공유했다.

참석자들은 휴머노이드 로봇에 탑재되어 ‘디지털 동료’로까지 확장될 수

있다는 점에서, 로봇·AI를 기반으로 하는 새로운 조직문화가 형성될 가능성에 주목했다.

로봇의 업무 범위·생산성은 AI와의 결합을 통해 폭발적으로 발전할 수 있기 때문에, 각 기업이 AI가 탑재된 로봇을 최대한 빠르게 도입해 관련 데이터를 선제적으로 축적해야 할 필요성에 대해서도 공감대를 형성했다.

참석자들은 다가올 미래에는 기술 이해도가 높은 인재의 중요성이 커질

것이라고 진단했다. 특히 향후 HR은 기술과 인간 통합을 설계하고,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을 제시하는 역할로 진화해야 한다고 의견을 모았다.

이들은 기존 HR 방식을 탈피해 기술·전략·조직 설계를 아우르는 리더십이 필요하고, 로봇과 AI를 이해하고 활용할 수 있는 다양한 역할 수행을 해야 한다고 공감했다.

현대자동차 HR본부장 김혜인 부사장은 “제조나 기술개발이 아닌 인사 분야 최고책임자들이 직접 만나 로봇·AI 시대에서의 HR 역할을 논의했다는 것 자체가 큰 의미라고 생각한다”며 “HR이 고전적인 역할을 넘어 기업의 비즈니스 방향성까지 제시할 수 있도록 현대자동차가 세계적 흐름을 선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보스턴다이나믹스 최고인사책임자 레이첼 살라몬은 “활력넘치는 회의였다”고 평가하며 “최고인사책임자들과 AI의 혁신적이고 새로운 기술을 활용해 팀과 직원들에게 힘을 실어줄 수 있는 방법을 논의할 수 있어 흥미진진했다”고 말했다.

/양성운 기자 ysw@metroseoul.co.kr

SK이노베이션

복합스테이션 계획 철회 비주력 사업 정리 나서

SK이노베이션이 부동산 전문 투자회사 SK리츠와 손잡고 추진한 주유소 복합 에너지플랫폼 개발 사업을 중단했다. SK그룹이 내세운 ‘리벨런싱’ 전략에 따라 비주력 사업 매각에 속도를 내는 모습이다.

13일 업계에 따르면 SK에너지는 ‘SK친환경 복합 스테이션 구조 고도화 사업’의 1호 사업지로 정했던 경기 시흥 SK시화산업주유소 개발을 중단한다고 한국산업단지공단에 통보했다.

SK에너지는 지난 2023년 SK주유소의 자산가치를 끌어올리고 친환경 에너지 공급 기능을 강화하기 위해 주유소를 복합 스테이션으로 전환하는 사업을 추진해 왔다. 해당 모델은 주유, 전기차 충전, 연료전지 발전, 세차, 물류 등을 한곳에 결합한 형태다.

첫 대상지는 사회국가산업단지에 위치한 SK시화산업주유소였으며 약 100억원을 투입해 기존 시설을 철거하고 도심형 물류 시설을 포함한 3층 규모의 옥내형 주유소를 개발할 계획이었다.

SK에너지는 2023년 10월 인허가 절차를 밟은 뒤 작년 5월까지 착공 예정이었으나 일정 지연이 이어지면서 지난해 12월 사업 중단을 최종 결정했다.

/차현정 기자

티웨이항공

밴쿠버 정기편 개설 북미취항 노선 확대

티웨이항공이 국내 저비용항공사(LCC) 가운데 최초로 북미 정기편 운항에 나섰다. 인천~밴쿠버 노선 신규 취항을 통해 장거리 노선 다변화에 속도를 내며 글로벌 항공사로의 도약을 본격화하고 있다.

13일 업계에 따르면 티웨이항공은 인천-밴쿠버 정기편 노선을 신규 취항하며 전날 인천국제공항에서 취항식을 진행했다. 행사에는 이상윤 티웨이항공 대표이사를 비롯한 임직원과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첫 취항편인 TW531편은 탑승률 96%를 기록하며 순조로운 출발을 알렸다.

밴쿠버 노선은 주 4회(화·목·토·일) 운항한다. 인천국제공항에서 오후 9시 5분 출발해 같은 날 오후 3시 25분 밴쿠버에 도착하며, 비행시간은 약 10시간 20분이다. 복귀편은 현지 시각 오후 5시 25분에 출발해 다음날 오후 9시 35분 인천에 도착한다. 비행시간은 약 12시간 10분이다.

해당 노선에는 A330-300 항공기(총 347석)가 투입된다. 이 중 12석은 비즈니스 세이버 클래스로 구성돼 있으며, 침대형 좌석과 조절 가능한 헤드레스트, 넓은 레그룸 등 장거리 여행에 적합한 설계를 갖췄다. /이승용 기자 lsy2665@

포스코, 아람코 플랜트에 HIC 강재 첫 공급

고난도 HIC 인증 획득 성과 국내 후방산업 수출도 연계 유럽 독점 깨고 경쟁력 입증

포스코가 유럽 철강사가 독식해오던 고사양 HIC 강재 시장에 진입했다.

포스코는 사우디 국영 석유회사 아람코의 ‘파드힐리 가스 플랜트 증설 사업’에 HIC 인증 에너지 강재를 공급한다고 13일 밝혔다.

파드힐리 증설 프로젝트는 세계 최대 석유회사인 아람코가 기존 플랜트의 가스 처리량을 1.6배 수준으로 높이는 대형 에너지 인프라 증설사업이다.

포스코가 이번에 납품한 HIC 강재는 수소 유발 균열(Hydrogen Induced Cracking)에 대한 저항성을 가진 강



사우디아라비아 파드힐리 프로젝트 전경. /포스코

철제품이며 가혹한 환경에서 사용되는 석유, 가스 등의 에너지용 강관이나 압력 용기 소재 등으로 활용된다.

에너지 강재는 사용처에 따라 에너지를 채굴, 생산하는데 쓰이는 플랜트

와 수송하는 파이프 부문으로 구분되는데, ‘수소 유발 균열 방지 강재’가 플랜트 부문에 납품되는 건 이번이 처음이다. 특히 아람코가 요구하는 플랜트용 HIC 강재는 국제 규격보다 높은 수준의 HIC시험과 품질 인증 절차로 그동안 유럽 철강사가 독점 공급해왔다. 현재 포스코를 포함한 9개 철강사만 아람코 인증을 받았으며 이번 공급을 통해 고부가 에너지 강재 시장에서 포스코의 기술력과 시장 지배력을 확대할 수 있게 됐다.

또한 포스코 HIC강재는 국내 배관, 압력용기, 피팅 제작사를 통해 완제품으로 가공돼 국내 플랜트 산업의 경쟁력을 높였다. 뿐만 아니라 파드힐리 프로젝트 초기에는 배관과 압력용기 제

작사로 유럽기업이 검토됐으나 포스코가 강재를 공급하게됨에 따라 제작사들도 국내업체로 변경됐다. 후방산업의 기술 경쟁력이 국내 전방산업에 신규 수요 납품 기회로 이어진 것이다. 현재 배관은 현대스틸파이프와 세아제강, 압력용기는 범한메카텍, 피팅은 태광에서 제작 중이다.

포스코 관계자는 “포스코는 보호무역주의, 고관세 정책 등 불확실성이 지속되는 글로벌 통상 환경 속에서 고부가가치 제품을 중심으로 신규 수요를 개발하고 판로를 확대해 초격차 경쟁력을 확보 중”이라며 “나아가 다양한 고객사와 전방위로 협력하며 국내 제조업의 성장과 경쟁력 향상에 앞장서고 있다”고 말했다. /차현정 기자 hyeon@

폴드7·위치8 등 신제품 체험공간 마련

삼성 갤럭시 체험존 ‘더현대 서울’

삼성전자가 새로운 갤럭시 신제품을 체험할 수 있는 ‘갤럭시 스튜디오’를 다음달 10일까지 더현대 서울 5층 에픽 서울에서 운영한다고 13일 밝혔다.

갤럭시 스튜디오는 ‘갤럭시 Z 폴드7’과 ‘갤럭시 Z 플립7’, ‘갤럭시 워치8 시리즈’의 핵심 사용성을 방문객들이 더욱 몰입해 경험할 수 있도록 구성됐다. 특히 젊은 세대의 다양한 문화공간 콘셉트 체험 공간에 감각적으로 적용됐다.

방문객들은 ‘갤럭시 Z 폴드7’ 체험 공간에서 ‘갤럭시 Z 폴드7’의 대화면 디스플레이를 3분할한 뒤 ‘제미니라이브’의 화면 공유 기능을 통해, 주여

진 사진과 상황 속 다양한 정보를 확인하는 ‘AI 멀티태스킹’ 기능을 사용해 볼 수 있다. 또 전자 대비 한층 업그레이드된 ‘갤럭시 Z 폴드7’의 2억 화소 초고해상도 카메라로 촬영한 사진을 확대해 사진 속의 또 다른 이야기를 찾아보는 체험과 ‘갤럭시 Z 폴드7’으로 사진을 촬영한 후 ‘생성형 편집’ 기능을 활용해 주어진 미션을 해결해보는 프로그램도 경험할 수 있다.

‘갤럭시 워치8 시리즈’ 체험 공간에서는 간단한 질문과 답변을 통해 ‘나의 러닝 레벨’을 확인하고 자신에게 적합한 수준의 러닝 코칭 프로그램을 확인할 수 있는 ‘러닝 서베이’가 진행된다.

/양성운 기자

“장거리 부담 줄여… 가족위한 SUV 각광”

르노코리아 ‘그랑 콜레오스’

파노라마 스크린 등 편의성 호평

르노코리아의 그랑 콜레오스가 단순한 이동 수단을 넘어 삶의 가치를 더하며 소비자들 사이에서 주목받고 있다. 그랑 콜레오스는 복잡한 도심 속에서 조용하고 부드러운 주행 성능과 함께 동급 최초로 동승석까지 이어진 ‘open R 파노라마 스크린’으로 동승객도 편하게 즐길 수 있는 인포테인먼트 환경을 선사하고 있다.

13일 업계에 따르면 르노코리아는 올 상반기 그랑 콜레오스의 꾸준한 판매에 힘입어 국내 시장에서 전년 동기 대비 150.3% 증가한 2만8065대의 판매고를



르노코리아 그랑 콜레오스 주행 모습.

기록했다. 같은 기간 수출은 38.7% 줄었지만 국내 판매 호조로 전체 실적은 11.6% 성장했다. 그랑 콜레오스는 국내에서 지난달 4098대를 포함해 상반기 누적 2만3110대 팔렸다. 특히 그랑 콜레오스는 지난 6월에 전월 대비 24.3%(3296대) 성장한 수치를 기록하며 상승세를 이어가고 있다. /양성운 기자